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조)



2018 년 12 월 31 일 월요일 10 시 30 분에

우리 자매 **로산나 마리아 일라리아 베네데띠 수녀님이**

네그랄 병원(베로나)에서

향년 79 세, 수도생활 55 년차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의 탄생으로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고 완성
하셨으니, 저희를 성자의 지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본기도의 말씀으로 언제나 찾으시고
사랑하셨던 선한 목자의 얼굴을 올해의 마지막 날에 “직접 맞대고” 완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로산나 수녀님을 성부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우리는 로산나 수녀님이 바라셨던 표현으로 그분의 약력을 진술하려 합니다. 로산나
수녀님은 1939 년 5 월 30 일 베로나에서 형제자매의 맏이로 태어나셨고 베로나의 거룩한
성모승천 주교좌 성당에서 6 월 8 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경제기술 학위를 받고 양성의
첫 번째 단계를 거친 뒤에 1961 년 9 월 2 일 22 세의 나이로 알바노 라찌알레 모원에서
입회하셨고 1962 년 9 월 2 일 수련기에 들어갔셨습니다. 다음해 9 월 3 일 첫서원을 허락
받았고 마리아 일라리아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로산나 수녀님은 서원 후 수도회
수녀님들의 준비를 돕는 내적 스승으로 알바노에 남았고 동시에 수도신학 교습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로산나 수녀님은 1972 년 9 월 26 일 호주 톰버리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1974 년
토마스 타운에서 이태리인 이민자들 사목을 하시게 됩니다.

1979년 총비서로 임명되어 로마-에우르 모스타차노에 위치한 총본부의 새로운 집에 머무르기 위해 1980년 말에 알바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981년에 살리체토 파나로(MO) 공동체 개설을 위하여 들어가셨고, 1984년에 관구통솔로 임명 받아 피렌체 사도직 공동체에 머무르면서 이 봉사를 행하셨습니다. 로산나 수녀님은 1981-1987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교회 운동에서 협력하셨고 1987년에서 1999년까지 총통솔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1999년에서 2001년에 토르산 로렌조(RM) 집에서 공동체 장상으로 마지막 해를 사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공동체에 투입되었습니다. 2001년 페스키에라 보로메오(MI) 공동체, 2003년 공동체 장상으로 비첸자에, 2013년 통솔직무 뿐 아니라 관구 비서에서도 면직될 때까지 베로나의 관구에서 머물렀습니다. 2017년 관구에서 직무를 마감하고 건강상의 위기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그라르 공동체 (VR)에 들어가셨습니다.

로산나 수녀님은 여러 방식으로 수도회에서, 나아가 여러 수도회를 위한 총회 준비와 지도에 있어서도 사랑하셨고 봉사하셨습니다. 바오로 가족 성지순례를 위해 유용한 자료들을 저술하셨고, 나아가 여러해 동안 바오로 가족 협력자회 잡지에 유용한 자료들을 기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기에 로산나 수녀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도록 저에게 말기고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이 병환의 마지막 시기에 공동체에서 화해의 성사와 병자성사를 강렬한 형태로 받으며 깊은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화해한 인간으로”사는 심원하고 묘사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했고 모든 빠스또렐라와 사람들이 “화해한 인간으로 사는” 이 위대한 기쁨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시기에 부드럽고 관대하게 로산나 수녀님을 돌보아주신 모든 수녀님들, 의료인들, 간병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로산나 수녀님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과 우리 시대의 인류와 함께 걷고 있는 수도회에게 맡겨질 은총의 새로운 해를 맡겨드립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총원장

2018년 12월 31일 로마에서
성탄 팔일 축제 기간 중에